

보도자료

2010년 9월 6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안근영 과장(☎710-6600)
품질인증과 최인현 사무관(☎710-6620) choigo@kcc.go.kr**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 단속 실시**

-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카, MP플레이어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법·불량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 완구점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 광주, 제주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조사·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 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전파연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는 KCC 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하실 때에는 인증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인증정보센터(rra.go.kr/join/declare/status/search_prod.jsp)에서 제품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불법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02-710-6624)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